



"친손자는 걸리고 외손자는 업고 가면서 업힌 아이 갑갑해한다 빨리 걸으라 한다"

뜻: 딸을 너무 사랑해서, 실제로는 친손자가 더 소중하면서도 걸으로는 외손자(딸의 자녀)를 훨씬 더 귀여워하고 챙겨주는 모습을 비유하는 말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사랑 · 애정 · 차별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친	손	자	는	↓	걸	리	고	↓	외	손	자	는		
업	고	↓	가	면	서	↓	업	힌	↓	아	이			
갑	갑	해	한	다	↓	빨	리	↓	걸	으	라	↓	한	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친	손	자	는	↓	걸	리	고	↓	외	손	자	는		
업	고	↓	가	면	서	↓	업	힌	↓	아	이			
갑	갑	해	한	다	↓	빨	리	↓	걸	으	라	↓	한	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* 사 자 나] [가 리 고] [오 손 자 는] [아 이] [가 모 사] [오 흥] [오 오] [가 가 흥 흥 다] [빠 리] [가 오 리] [흥 다]

웹에서 보기

